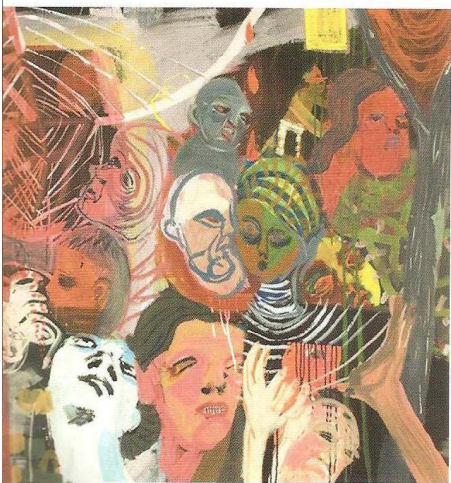


INVOGUE

Dangle BANGLE

티아라처럼 화려하고, 하이힐만큼 건축적이며, 쿠사지보다 아름다운 뱅글. 뱅글! 손목 시계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뱅글이 새로운 '잇 액세서리'로 등장했다. 먼 세계로 여행하는 패스 같은 뱅글들은 각 패션 하우스의 아이코닉 디자인 요소를 더해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있다. 게다가 하늘거리는 이브닝 드레스나, 데님 팬츠와 저지 티셔츠를 입을 때도 이런 뱅글 하나만 더하면 언제든 멋진 포인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어실론 수십 개의 액세서리보다 꽤 유용할지 모르겠다. 단, 손목을 가득 덮을 정도의 넓은 뱅글로 스타일링을 마무리할 때는 그것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사실. 액세서리를 자랑처럼 더하고 싶은 마음은 부디 꼭꼭 누를 것. **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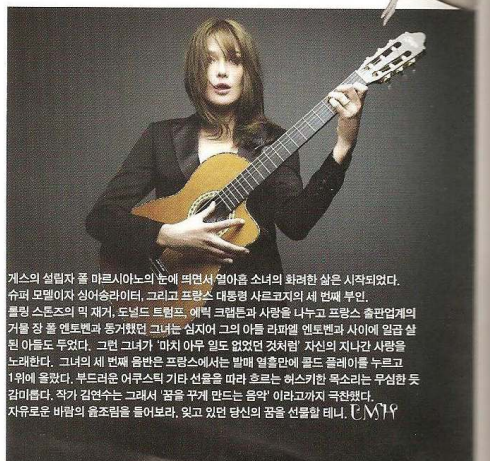
(위부터) 말 모티브의 뱅글은 켈리, 우윳빛 스톤이 우아한 뱅글은 샤넬, 건축물처럼 견고한 뱅글은 프라다, 꽃처럼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뱅글은 랑방.



DAY TO DAY

이티스트는 오늘 하루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기록할까? 뉴욕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젊은 작가 라이언 슈나이더(Ryan Schneider)와 에밀리 노엘 램버트(Emily Noelle Lambert)는 자신이 기억하고 경험한 시간과 공간을 개성적으로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의 삶을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동기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슈나이더는 그 하루하루를 독창적인 질감과 현란한 색감으로 그려낸다. 캔버스 안에 꿈과 현실, 합리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들의 충돌을 혼합적으로 담아내는 램버트의 작품들은 밝은 색상과 위기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 친밀하지만은 않은 이 이티스트들의 하루가 서울에서도 시작된다.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M ART'에서 만나볼 수 있다. **CMFY**

VOGUE KOREA SEPTEMBER 2008 WWW.VOGUE.COM



게스의 설립자 폴 마르시아노의 눈에 띄면서 열아홉 소녀의 화려한 삶은 시작되었다. 슈퍼 모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세 번째 부인, 롤링 스톤스의 빅 제거, 도널드 트럼프, 에릭 크립튼과 사랑을 나누고 프랑스 출판업계의 거물 장 폴 엔토벤과 동거했던 그녀는 심지어 그의 아들 라파엘 엔토벤과 사이에 일곱살 된 아들도 두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지나간 사랑을 노래한다. 그녀의 세 번째 음반은 프랑스에서는 발매 일출만에 골드 플래티넘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부드러운 어쿠스틱 기타 선율을 따라 흐르는 허스키한 목소리는 무심한 듯 감이롭다. 작가 김연수는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드는 음악이라고까지 극찬했다. 자유로운 바람의 울조림을 들어보라, 있고 있던 당신의 꿈을 선물할 테니. **CMFY**